

마음을 낮추니 '편안'



예산 수덕사 선수련회 습의사 전선 스님과 수련생들이 공양물을 주는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수덕사 禪수련회 프로그램 '거리탁발 체험'

#밥을 얻어 먹는다. 낯설지만 색다르다
가만히 서 있어도 밥이 덕송산 계곡물
처럼 흘러내린다. 미리 준비한 수건으로
땀을 연신 닦아내지만 역부족이다. 이를
뒤의 입추(立秋)보다 열흘이나 남은 말
복(未伏)이 어울리는 짙동더위다.

수덕사(주지 법정)는 7월27~30일과 8
월4~6일, 8월 10~13일 3차례에 걸쳐
선수련회를 진행했다. 탁발이 수행자에
게는 하심을, 보시자에게는 복덕을 쌓
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수덕사는 올
수련회부터 탁발을 수련프로그램에 포
함시켰다.

8월 5일 오후 4시 예산 수덕사 황화정
무 앞, 88명의 수덕사 여름 선수련회 참
가자들이 각자의 발우를 들고 모였다.
바로 탁발을 하기 위해서다.

탁발에 앞서 2시간 동안 참선을 하며,
마음을 비우고 또 내려놓으려 노력했지
만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는 않아 보인다.
부모와 함께 수련회에 참석한 태경
(18·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은 "밥을
얻어 먹는 것이 낯설지만 부처님이 살
아계셨을 때 매일 매일 하셨다고 하니
느낌이 색다르다"고 한다.

#'탁발은 수행, 보시자에 게 갖춰질'
드디어 수덕사 포교국장 지오 스님과
4명의 습의사 스님들이 수련생들을 이
끌고 일주문을 나선다. 길게 늘어선 수
련생들이 신기한지 이날 수덕사를 찾은
관광객들은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다.
"무슨 일이나?"는 관광객들의 질문에
수덕사 템플스테이를 담당하고 있는 안
진영씨는 "주민들에게 음식을 받아 먹

는 탁발을 하는 것"이라고 탁발 의미를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다.

어느새 사하촌에 도착한 수련생들에
게 지오 스님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을
잊지 않는다. "탁발도 수행입니다. 공양
물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예를 갖
추시기 바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양
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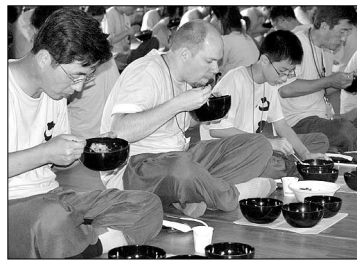
수련생들이 3~4명씩 한조가 돼 집을
방문한다. 축스러운 표정을 감출수 없
는 수련생들을 환한 미소로 맞은 천용
· 황화자씨 부부는 정성스럽게 하얀
쌀밥과 몇 가지 나물, 고추장을 발우에
담아준다.

휴가 기간을 이용해 수련회에 참석했
다는 허은주(35·고양시 일산구 백석
동)씨는 "여러 사찰 수련회에 참석해왔
지만 발우를 직접 들고 탁발을 하기는
처음"이라며 "정성을 다해 음식을 주시
는 주민들이 그저 고맙기만 하다"고 소
감을 전했다.

김선식(경기도 김포시 사우동)·김은
영씨 부부도 "오늘 저녁에는 예전과 다
르게 좀 더 특별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뿌듯한 표정을 숨기지 않는다.
수련생들은 이급거리는 아스팔트 위
를 2시간 동안 걸으며 부처님과 같은 모
습으로 탁발을 했다.

일부 공양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원한 음료수와 물까지 얻
은 사람들은 싱글벙글이다.

#'남김없이 비워 감사의 마음 전하자'
주민들의 훈훈한 인심과 음식물로 채
워져 무거워진 발우를 들고 다시 황화



탁발한 공양물을 먹고 있는 데이비스씨(왼
쪽에서 두번째).

정무에 돌아온 수련생들은 서로 마주보
며 발우공양을 준비한다.

습의사 현우 스님은 "발우공양 역시 부
처님 당시부터 전해오는 불교 교유의 식
사문화"라며 "탁발을 통해 얻어온 음식
을 남김없이 비워 공양물을 주신 모든 분
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고 말했다.

본격적인 공양에 앞서 수련생들은 공
양물을 받아 오지 못한 동료들을 위해
심시일반 공양물을 나눴다.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한 데이
비드 슈마커(34·미국)씨는 "불교문화
를 체험하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탁발
까지 하게 돼 무척 재밌다"고 말한다.
고등학교 종교 교사인 데이비드씨는
"한국과 같이 미국에도 다양한 종교가
뿌리내리고 있다"며 "이번에 체험한 한
국의 불교문화를 학생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탁발과 발우공양을 마친 수련생들은
1080배와 탑돌이 쫄보의식을 끝으로 하
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마음을 낮추는
탁발체험으로 한층 뿌듯해진 수련생들
은 다음날 일찍 덕송산 정상에 올라 어
느새 한국 근대 선(禪)을 중흥시킨 경
허·만공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
고 있었다.

글·사진/수덕사·유철주 기자

템플스테이 안전사고 이상無

공주 영평사 공주의료원과 지정병원 협약

보건소·119 구조대와 연계도

충남 공주 영평사(주지 환성)가 템플스
테이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
고에 대비하기 위해 공주 의료원과 지정병
원 협약을 체결했다.

8월 5일 공주의료원 회의실에서 열린
지정병원 협약식은 강선배 공주의료원장
과 환성 스님의 협약서 서명으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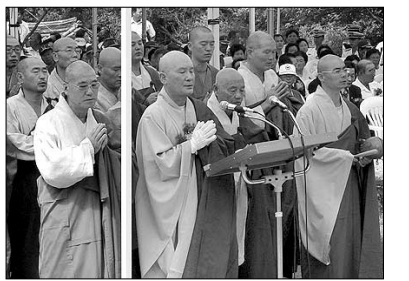
영평사가 공주의료원과 지정병원 협약
식을 맺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시 신
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찰에
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대기하고
있어 초기 대처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보건소와 119 구조대
와의 연계도 강화하여 템플스테이로 영평
사를 찾은 이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산사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영평사는 현재 국내 사찰 중 화재보험
가입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사찰로 낙산사
화재 이후 안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한 사
찰로 주목 받은 바 있다.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은 "영평사가 올
해 템플스테이 사찰로 운영되면서 휴가철
인 7·8월의 경우에만 연인원 1000명 이상
이 2박3일간 산사체험에 참여했거나 예약
하고 있는 상태로 안전과 위생문제에 신경
을 많이 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태안전투 순직경찰 위령제



태안사 스님들이 초혼 독경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곡성 태안전투에서 순직
한 경찰관들의 넋을 달래는 위령제가 8월
5일 태안사 내 경찰 충혼탑에서 열렸다.

곡성 태안사 주지 총호 스님과 대중스
님들의 초혼 독경을 시작으로 열린 이날
위령제에는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한강
택 전남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장과 유가족, 참전 동지 회원 등 300여명
이 동참해 순직 경찰관 영령들의 극락왕
생을 기원했다.

올해 55주기를 맞는 태안사 위령제는
1950년 8월 6일 한국전쟁 당시 태안사에
지휘본부를 두고 곡성지역을 사수하던 중
북한군과 교전으로 산화한 경찰관 48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글·사진/이준엽 기자

광주 덕림사 교사 초청 법회

광주 덕림사(주지 무이)는 8월 16일 오
전 10시 대웅전에서 제3차 명사초청법회
를 개최했다.

이번 초청법회는 광주 운남고등학교 진
학실장 임양성 교사가 초청법사로 나와
'입시에 대비한 수험자와 학부모의 마음이
잡'이란 주제의 강의와 상담을 진행했다.

무이 스님은 "대입 능력이 막바지에 다
다르면서 초조해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어나 입시전문가를 초청했다"며 "법당
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입시 전문가의 조
언을 참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매월 개최하는 덕림사 명사초청법회는
회를 거듭하면서 불자뿐 아니라 지역주민
들의 참여가 높아 사찰이 지역주민과 함
께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준엽 기자

대전 연꽃마을 연꽃 전시회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연꽃마을(주지 도
공)이 8월 20일 낮 12~3시 경내에서 300여
명의 스님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꽃
을 주제로 한 시낭송회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인 박재천씨와 성찬경씨가
자작시를 발표할 예정이며, 연인자를 시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연꽃마을 주지 도공 스님은 "하루 방문
객만 수 백명에 이르고 있다"며 "행사 참
석자들에게는 무료로 연인자를 제공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042)274-5754

유철주 기자

* 기사보너스 '지금 우리절에서는...'입니다.

"증심사 일대 사찰수행환경 UP"

광주시, 생태복원사업 착수

광주 무등산 증심사 일대 대대적인 생
태복원사업으로 사찰 수행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8월 8일 "증심사 입구의 무질
서한 상업지구와 원주민촌을 이주하고 이
곳을 시민들의 휴식처로 가꾸는 생태복원
사업을 이달 말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밝
혔다.

200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증
심사 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 투입된다.

이달 말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
사업은 상가와 주민 68가구 이주단지를 조
성하며 2007년까지 2단계로 주차장과 버
스 회차지를 만든다. 또한 2008년 마무리
되는 3단계는 상가단지 조성, 방문자센터
건립, 생태복원작업이 펼쳐진다.

1972년 공원지구로 지정된 무등산 증심
사 지구에는 증심사, 약사사, 문빈정사 등
광주를 대표하는 사찰이 자리해 있으나 상
가 난립으로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 논란이
있어왔다. **이준엽 기자**

조계사 소방시설 시연회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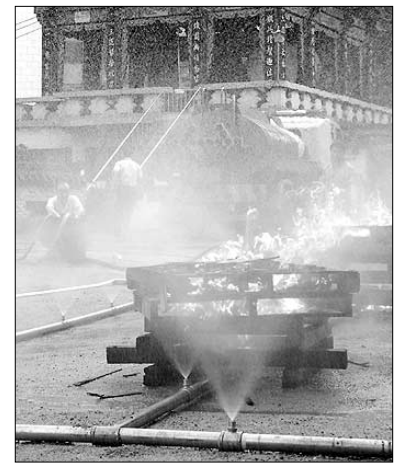
물 분무설비시스템 도입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의 일환인 대
웅전 중창불사가 한창인 조계사(주지 원
담)가 고건축물 보호를 위한 첨단 소방 설
비인 '해어초크 물분무설비시스템(WSH)'
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조계사는 8월10일 부주지 도문 스님, 서
울시 문화재 심의위원, 종로구청, 종로소
방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앞마당에서 WSH를 시연했다.

특일의 고건축물과 박물관 등에 설치·
사용되고 있는 WSH는 물방울 크기를
0.1mm 이하로 분해한 미분자 구조를 강력
하게 분무할 수 있는 노즐을 통해 소화하
는 시스템으로, 화재시 질식사의 원인인
연기를 미세한 물 입자구조가 흡착해 인명
피해를 줄이고 화재를 조기 진압할 수 있
는 첨단 소화 장비다.

도문 스님은 "한국불교의 상징으로 서울
시 유형문화재 127호인 대웅전이 변변한



조계사가 WSH 소방설비 시연회를 열었다.
사진=고영배 기자

소방시설 없이 화재에 무방비였던 것이 사
실"이라며 "낙산사 화재 같은 참화가 재발
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찰 소방대책을 갖춘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남산당 정일 대선사 열반1주기 추모법회

南山堂 正日 大禪師의 열반 1주기 추모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문도스님 및 사부대중은 수희 참석하시어 함께 자리하시기를 앙망하나다.

- 일 시 : 불기 2549년 8월 27일 (음, 7월 23일)
- 시 간 : 오전 10시
- 장 소 : 삼각산 보광사 (서울 강북구 우이동 76-19)
종무소 02)993-3808

불기 2549년 8월 10일

삼각산 보광사 남산문도회 문도일동 합장

http://cce.khu.ac.kr 열린 대학교육 · 평생교육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학생 모집

기문명리학	기문명리학 사주, 작명, 택일, 양택, 단서 등을 기문역학으로 파악하고 실생활에 응용하는 과정 홍국수의 기본바탕 모형의 원리와 팔문, 팔괘, 팔장을 기문으로 포괄하는 방법 학습 ● 수 19:00 ~ 21:00 (2학기 과정) 학기당 200,000원 ● 60세 이상 수강자에게 수강료 50% 감면혜택을 드립니다.
웰빙관상학	우리 얼굴, 신체 모든 부위의 형태와 기색을 살펴 운명 변화, 웰빙법 연구 골격과 살집의 미학, 심이공과 심삼부위, 성형미학과 출세, 얼굴의 색갈과 운명교정 학습 ● 월 10:00 ~ 12:00 (2학기 과정) 학기당 200,000원
한국 전통 민속 문화	한국인의 전통무속신앙, 자연숭배사상, 풍수지리를 연구, 현장답사 및 실습체험 ● 금 19:00 ~ 21:00 (2학기 과정) 학기당 200,000원
한문해석법	체계적인 한문해석법 습득과 「명심보감」 「동몽선습」 「계몽편」 독해, 중국시, 한국시 감상과 탐구 ● 월 14:00 ~ 16:00 (15주 과정) 200,000원 ● 60세 이상 수강자에게 수강료 50% 감면혜택을 드립니다.
한시 창작	한시의 역사와 작법을 습득하고 고문 이해, 명시 감상 및 창작을 통한 한시의 여러 장르 연구 ● 목 10:00 ~ 12:00 (15주 과정) 200,000원

▶ 특전 : 경희대 총장명의로 수료증, 도서관 이용 ▶ 접수기간 : 2005년 8월 29일(월)까지 (방문접수·평일)

- 개 강 : 2005년 9월 1일(목)부터 각 강좌 해당 요일
- 접 수 처 :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네오르네상스관 2층)
- 문 의 처 : Tel (02) 961-0870~2 홈페이지 http://cce.khu.ac.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자세한 교육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교통안내 : 지하철 1호선 회기역 하차 1번출구(마을버스 경희대학교 정문 하차)